




곡성 연운당 고문서 (谷城 漣雲堂 古文書)



📍 주소 곡성군 석곡면 전기길 67-1

☎ 전화 -

❤ 추천 0

이용시간 정보없음
 휴무일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문화유산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규모
유형문화유산 제321호	2015.08.06	조선시대	177점

연운당은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반촌에 자리 잡은 선산유씨 곡성입향 본가이고, 현재는 후손 유종표가 소장 고문서를 관리하며 살고 있다.

곡성 능파리로 들어온 선산유씨 입향조는 조선조 중기의巨儒인 유희춘(1513-1577, 眉巖)의 증손자 柳益淸(1582-1660, 凌湖)인데, 그는 許穆과 교유하고 병자호란에는 창의하여 선비 정신을 드높였던 인물이다.

능파리에서 연반촌으로 이주한 인물은 유익청의 현손인 진사 柳復三(1729-?)이다. 유복삼은 유희춘의 학덕을 현창하는 일에 평생의 노력을 쏟았으며, 그 결과로 현재 연운당에는 그의 손때가 묻은 고문서가 약 140여건 정도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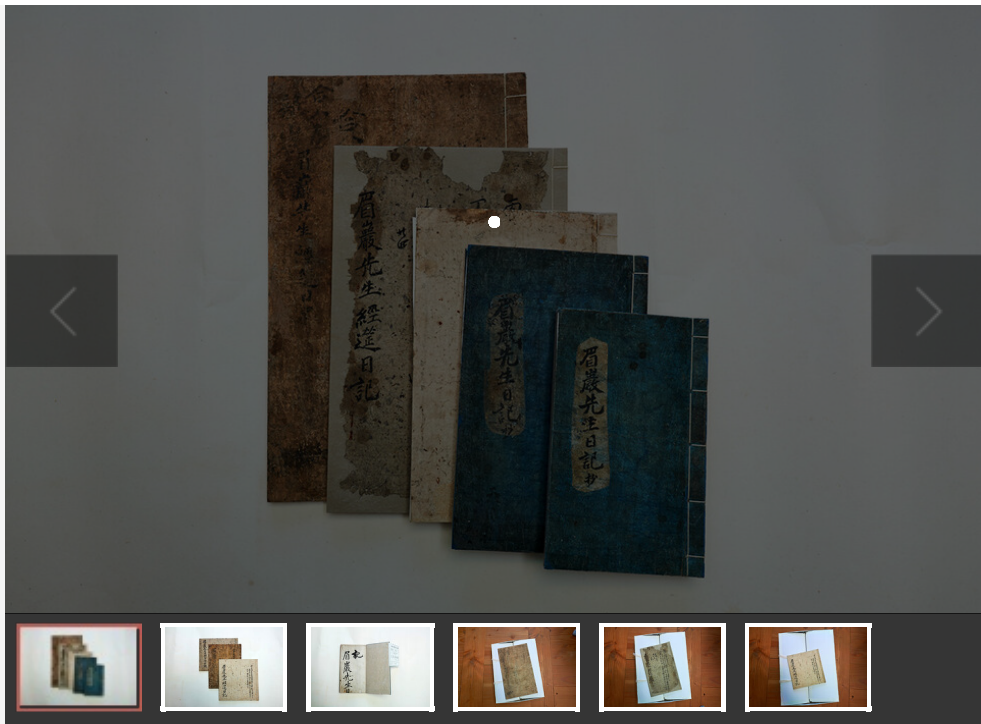
유복삼은 유희춘의 문묘배향을 추진하고, 『眉巖集』과 「經筵日記」 「眉巖日記」 등의 간행에 앞장 선 인물이다.

연운당 소장 고문서에는 教旨, 試券, 乞科文, 上疏, 上書, 眉巖日記抄, 經筵日記抄, 傳記, 完議, 明文, 戶口單子, 準戶口, 所志, 山圖, 簡札 등 다양한 기록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眉巖日記抄, 經筵日記抄, 全羅道五賢陞廡疏, 五先生祠宇請建疏, 達川忠義錄 등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연운당 자료에는 古書도 다수 소장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연운당이 소실될때 모두 불타버렸고, 현재 유종표씨의 모친(평산신씨, 밀양손씨)이 고문서 상자를 들고 나와 다행히 소실을 면한 고문서 일부만 보고되어 있다.

※ 본 저작물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문화재검색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



★ 곡성 연운당 고문서 (谷城 漣雲堂 古文書)

📍 곡성군 석곡면 전기길 67-1

📞 정보없음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 곡성 연운당 고문서 (谷城 漣雲堂 古文書) : 곡성군 석곡면 전기길 67-

📍 대중교통길찾기

1

목록으로

Web Contents

